

도시 맞벌이부부의 금전관리와 경제생활주도권 유형의 측정방법 및 실태*

Money Management and Control of Family Finances Patterns of
Urban Dual-Earner Couples.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한 지 수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부 교 수 이 연 속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Jee Soo, Ha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ssociate Prof. : Yon Suk, Lee

〈목 차〉

- I. 서론
- II. 금전관리의 개념과 선행연구에 나타난 유형
- III. 경제생활주도권의 개념과 선행연구에 나타난 유형
- IV. 금전관리 유형에 따른 경제생활주도권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 V. 금전관리 유형과 경제생활주도권 유형의 측정방법 및 실태
- VI. 결론 및 제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patterns of money management and control of family finance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311 wives who were currently employed in professional, managerial, and clerical occupation living or employed in Seoul. Frequency, percentage and cross-tab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money management patterns were classified into six types; wife-management

* 본 연구는 첫 번째 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일부를 정리한 것임.

pattern, wife-management/husband-alienation pattern, wife-management/husband-involvement pattern, joint management pattern, joint/separate mixed pattern, and multi management pattern. Among them wife-management pattern was used most frequently by the couples.

2) Four family finance control patterns were found and named by joint control, wife control, husband control, and self control. The joint control pattern was found to be the most prevalent one.

3) Money management patterns influenced how family finances were controlled.

1. 서 론

1. 문제의 제기

맞벌이부부는 가사노동 분담, 주도권관계, 역할갈등, 시간관리, 결혼생활의 질 등에서 홑벌이부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그런데 '맞벌이'라는 단어에 나타나 있듯이 부부 '양쪽'이 '벌이'를 한다는 점은 홑벌이부부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우선 아내와 남편이 시장노동을 통해 번 서로 다른 액수의 소득을 가정안에서 누가 어느 정도 관리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의 홑벌이부부는 일반적으로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남편의 소득을 관리하고 지출하는 부부간의 경제적 역할분담을 하였다(문소정, 1995). 그러나 최근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주로 젊은층에서 부부의 소득을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각자의 돈을 각자가 관리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국은경제연구소, 1993; 여성신문, 1993.10.1; 조선일보, 1994.2.13; 동아일보, 1995.12.27; 문소정, 1995).

다음으로 맞벌이부부는 부부간의 경제생활에 대한 주도권관계도 달라지게 된다. 전통 한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부부의 주도권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 남편이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면 아내는 그에 따르는 유형이었다(문소정, 1995). 그러나 취업한 아내는 발언권과 권력이 증가하여 맞벌이부부가 홑벌이부부에 비해 평등한 주도권관계와 공동의사결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Lee와 Peter-

sen, 1983; Sexton과 Perlman, 1989), 특히 경제적인 면의 의사결정시 그 경향이 두드러진다(Edwads, 1981; Ferber, 1982; Wilson, 1987; Spitze, 1988; 임정빈, 1986).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맞벌이부부의 경제생활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들의 소비행동에 중심을 두고 있거나(이용학, 1986; 김문정, 1987; 황성심, 1991; 국은경제연구소, 1993; 조은희, 1993; 재미경, 1994), 소득관리에 대한 연구들도(김미혜, 1987; 국은경제연구소, 1993; 제일기획, 1995, 동아일보, 1995.12.27에서 재인용) 극히 부분적으로 이 문제들을 다루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맞벌이부부의 경제적 주도권은, 전체 의사결정연구의 일부로 경제생활에 대한 의사결정을 다룬 연구(강수경, 1985; 이정우와 김규원, 1986; 이기숙, 1994)와, 기존 여성의 취업유무에 따른 재정적사결정을 다룬 연구(김현정, 1992)에서 부분적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이들 연구들은 맞벌이부부의 경제적 주도권 현상을 파악하는 데는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맞벌이부부의 경제적 관계의 주요 측면인 금전관리방식과 경제생활주도권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 실태를 파악하여 맞벌이부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상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2. 연구문제

1. 도시 맞벌이부부의 금전관리방법은 어떻게 유형화 할 수 있으며 실태는 어떠한가?

2. 도시 맞벌이부부의 경제생활주도권은 어떻게 유형화 할 수 있으며 실태는 어떠한가?
3. 금전관리 유형에 따라 경제생활주도권 유형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II. 금전관리의 개념과 선행연구에 나타난 유형

1. 금전관리의 개념

가정밖에서 가정안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두 가지의 주요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Brannen과 Moss, 1987). 무엇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미 내려진 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가계금전관리란 부부가 선택한 특정한 금전관리방식을 운영시켜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Pahl, 1989). 이러한 가계의 금전관리방식이 운영되는 과정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정밖에서 가정안으로 돈이 들어오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가정안으로 들어온 돈이 부부간에 특정 방식으로 재분배(합산)되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는 가정생활을 위해 지출을 담당하는 것이다.

Brannen과 Wilson(1987)은 위의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금전에 접근한다(access)’는 개념을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즉 첫 번째 단계를 외부적 차원의 접근(external access)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소득원천과 관련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위와 같은 외부차원으로 접근한 돈이 가정안으로 들어와 부부사이에서 재분배되어 부부가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되는 단계인데 이를 내부적 차원에 의한 접근(internal access)라고 하였다. 이때 내부적 차원에서 부부에게 재분배되었다는 말은 외부적 차원에서 들어온 돈이 부부사이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합쳐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ahl(1989)은 이러한 내부적 차원에서 부부가 금전에 접근하는 것과 가계지출에 책임지는 것을 합하여 금전관리체계(money management system)라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금전관리를 부부가 가정밖에서 번 돈을 가정안으로 가지

고 들어와, 부부사이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합산한 후, 가계지출에 책임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금전관리 유형

선행 연구에서 금전관리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살펴보면 총소득관리(남편소득관리)를 기준으로 한 연구(Zweig, 1961, Pahl, 1989에서 재인용; 황덕순, 1981; 국은경제연구소, 1993; 제일기획, 1995, 동아일보, 1995. 12. 27에서 재인용); 생활비관리(가계관리)를 기준으로 한 연구(박명희 1977; 황덕순, 1981; 김양희, 1991; 임정빈 외 7인, 1994); 생활비조달유형을 기준으로 한 연구(국은경제연구소, 1993); 가계지출행동을 기준으로 한 연구(Land, 1969, Pahl, 1989에서 재인용; Gray, 1974, Pahl, 1989에서 재인용); 부부소득과 생활비관리 유형을 합하여 기준으로 한 연구(문소정, 1995); 총수입관리와 가계지출행동을 합하여 기준으로 한 연구(Nickell과 Dorsey, 1969; Edwads, 1981; Pahl, 1989; 박명희, 1977)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총수입관리, 남편수입관리 등은 ‘부부의 소득합산방법’으로, 생활비관리, 생활비조달, 가계지출 등은 ‘가계지출책임’으로 크게 구분지을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이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적용하거나 두 가지를 한꺼번에 혼합하여 적용하여 부부의 금전관리유형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금전관리유형을 부부의 소득합산방법과 가계지출책임유형의 두 가지 기준으로 각각 분류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결합하여 부부의 금전관리유형에 대한 다양한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경제생활주도권의 개념과 선행연구에 나타난 유형

1. 경제생활주도권의 개념

가정에서 금전관리체계의 주체가 된다는 것(합한

〈표 1〉 연구자별 금전관리의 분류기준과 유형

연구자(연도)	연구대상	분류기준	분류 유형(고딕체는 가장 빈도가 높은 유형)
Zweig* (1961)	영국, 남성근로자	남편이 소득을 아내에게 주는 정도	① 소득을 모두 주는 유형 ② 소득의 일부만 주는 유형 ③ 공동관리
Land* (1969)	영국, 가족	가계지출책임	① 공동책임형 ② 아내책임형
Gray* (1974)	영국, 노동자가족	남편관리 돈으로 가계지출하는 정도	① 남편이 거의 지출하지 않는 유형 ② 남편이 한가지 이상의 비목에 지출하는 유형
Edwards (1981)	호주, 16세 이하 자녀있는 부부	부부소득관리와 가계지출책임	① 아내관리형 ② 남편관리형 ③ 부부공동관리형 ④ 독립적 관리형
Pahl (1989)	영국, 16세 이하 자녀있는 부부	소득 관리와 가계지출책임여부	① 전액 아내관리형 ② 일정액관리형 ③ 공동관리형 ④ 독립관리형
British Social Attitudes Survey* (1987)	영국		① 완전독립관리형 ② 일부독립관리형
Nickell과 Dorsey (1969)	미국	총소득관리 생계비지출관리	① 예산책정방법 ② 생계비 및 1인소유할당방법 ③ 생계비를 제외한 2인 분배방법 ④ 2인평균분배방법 ⑤ 요구시마다 지불하는 유형
박명희 (1977)	어촌(핵가족, 직계가족)	가계관리	① 세대주 ② 세대주처(직계) ③ 세대주부모 ④ 세대주와 처가 공동(핵)
		Nickell과 Dorsey의 유형기준	① 예산책정방법 ② 생계비 및 1인 소유할당방법 ③ 요구시마다 지불하는 유형 ④ 주부가 완전 관리하는 유형
황덕순 (1981)	제주도	생계비부담자, 생계비관리자, 총수입관리자	① 남편(생계비부담자) ② 부인(총수입관리자, 생계비관리자) ③ 부부공동
김양희(1991)	전국	가정내 돈관리	① 아내 ② 남편 ③ 부부공동
국은 경제연구소 (1993)	서울과 수도권, 취업주부	생활비조달유형	① 주부소득일부에 남편소득일부 ② 남편 소득만 ③ 주부 및 남편소득 모두 ④ 주부소득만
		가계소득관리	① 생활비 제외한 소득 전부를 부부공동관리 ② 생활비 제외한 소득 전부를 남편관리 ③ 주부소득일부 남편소득 전부를 남편관리 ④ 주부소득전부 남편소득 일부를 주부관리 ⑤ 부부소득을 전부 공동관리 ⑥ 부부소득을 전부 남편관리 ⑦ 주부소득과 남편소득을 모두 부인관리 ⑧ 각각관리
임정빈 외 7인(1994)	아파트거주 중년기 가족	생활비관리	① 주부가 전적으로 책임 ② 생활비, 저축 부부간 분담 ③ 큰비목, 생활비 부부간 분담 ④ 대부분 남편이 관리
문소정 (1995)	실증연구 아님	부부 수입과 생활비관리유형	① 수입과생활비 모두 아내관리 ② 수입은 남편관리 생활비 아내관리 ③ 수입은 각자관리 생활비 공동관리
제일기획** (1995)	결혼 7년 미만, 서울, 맞벌이 부부	수입관리	① 부부공동관리 ② 아내전담 ③ 남편전담 ④ 각자관리

* : Pahl(1989)에서 재인용

** : 동아일보 1995년 12월 27일자에서 재인용

돈을 관리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돈으로 가정생활을 위한 지출행동을 하는 것이 가정으로 들어온 금전을 통제(control)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dwards(1981, Pahl, 1989에서 재인용)는 통제(control)란 무엇을 살지 등의 가정경제생활에 대해 방향을 설정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 하였다. Pahl(1989)은 가정에서의 경제적 통제(control of fianace)란, 부부가 어떤 금전관리방식을 선택할지, 어떤 배우자가 주요한 재정결정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는지, 부부의 돈을 한쪽 배우자의 개인적 용도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등 경제생활과 관련된 일에 대해 방향을 설정하거나 의사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가정에서의 경제적 통제란 가정경제생활에 대해 방향을 설정하거나 의사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통제란 권력(power)과 유사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Wolfe(1959, 김홍은 1986에서 재인용)는 권력이란 두 명 이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한 집단의 상호작용적인 구조적 측면을 분석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가족도 하나의 집단으로서 가족안에서도 권력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Cromwell과 Olson(1975)은 가족권력을 권력의 근거, 과정, 결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대부분의 후속 연구들에서는 권력의 결과인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전체 권력을 측정하고 있다(Blood와 Wolfe, 1960; Sharon-Bonham, 1976; Spitze, 1988; 김홍은, 1986; 김성희와 문숙재, 1989; 박민자, 1992; 최규련 외 4인, 1995; 최규련과 서동인, 1995).

Pahl(1989)은 부부권력을 의사결정 점수와 금전에 대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가지 방법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제까지의 통제와 권력에 대한 개념과 실증연구를 종합해 볼 때, 첫째 통제자는 의사결정라는 것, 둘째 권력자도 의사결정자라는 것, 셋째 통제자와 권력자 사이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통제자와 권력자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이를 의사결정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부간의 경제적 통제권과 경제적 권력도 같은 개념이라고 간주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부부간의 '경제생활주도권'이라고 하였다. 경제생활 주도권은 가정경제생활에서 부부간에 가지는 잠재된 영향력인데 가정경제생활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행동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말한다.

2. 경제생활주도권 유형

경제생활주도권 유형을 분류할 때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Blood와 Wolfe(1960)가 분류한 4가지 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가정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하여 누가 결정하는가를 '전적으로 남편', '주로 남편', '부부 공동', '주로 아내', '전적으로 아내'라는 유형의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리고 측정값을 3등분하여 상위점수를 아내우위형, 하위점수를 남편우위형으로 하고, 중간점수는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를 과반수 이상 선택하였으면 일치형, 그렇지 않으면 자율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Pahl(1989)의 연구도 경제생활 주도권 유형을 아내주도권형(40.2%), 남편주도권형(36.3%), 공동주도권형(23.5%)으로 분류하였다. McConocha 외 2인(1993)은 가정경제생활에서의 주도권 유형을 Pahl(1989)과 유사하게 분류하였는데 Pahl(1989)의 분류 유형에 부부 분리형을 첨가시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황덕순(1981)은 가계지출시의 최종의사결정권자를 살펴봄으로써 경제생활 주도권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남편이 37.6%, 부부공동이 35.7%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아내는 18.5%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분류하고 있는 유형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 항목들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의사결정 영역의 중요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Heer(1963, Sharon-Bonham, 1976)는, 의사결정영역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Safilios-Rothchild(1970)도 의사결정의 '중요성 정도'로 가중치를 부여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Sharon-Bonham, 1976).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각각의 의사결정사안이 전체 가정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중요성 정도'로 각 의사결정사안에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 각자의 일을 알아서 결정한다'는 응답범주를 포함하고, 각 항목에 대한 '중요성 정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경제생활 주도권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는 가정경제생활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항목을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Ferber(1973, McConocha 외 2인, 1993에서 재인용), McConocha 외 2인(1993), 임정빈(1986), 정무(제2)장관실(1994)의 연구를 토대로 가정에서 경제생활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사결정 영역을 일상적인 금전관리, 구매행동, 재무행동, 저축 및 투자행동의 4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구체적인 하위영역은 <표 2>와 같다.

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공동주도권형은 33.3%, 아내주도권형은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Pahl(1989)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전관리유형을 공동관리와 비공동관리로 나누고, 주도권유형을 아내주도권형과 남편주도권형(남편주도권형과 공동주도권형을 모두 남편주도권형으로 함)으로 나누어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공동관리-남편주도권형이 38.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공동관리-아내주도권형이 26.5%, '(비공동관리-)아내주도권형이 21.6%, '(비공동관리-)남편주도권형이 13.1%로 나타났다.

황덕순(1981)은 제주도 가계를 대상으로 총수입관리자와 최종의사결정자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아내가 총수입관리자일 경우 남편주도권형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동주도권형 33.3%, 아내주도권형 26.1%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총수입관리자일 경우 남편주도권형이 5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공동주도권형이 39%였으며 아내주도권

<표 2> 경제생활주도권의 대상영역

일상적인 금전관리	구매행동	재무행동	저축 및 투자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생활비 지출 · 신용카드사용 · 자녀교육비 · 부·경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구재 구매 · 자동차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에서의 용자 · 친척이나 친지에게 돈 빌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이나 보험가입 방법과 액수결정 · 주택·토지 등 부동산 구입 · 주식투자

IV. 금전관리 유형에 따른 경제생활주도권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Pahl(1989)은 부부의 금전관리유형과 금전에 대한 주도권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내완전관리형에서는 모두 아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일부관리유형에서는 남편주도권형이 45.5%로 가장 많았고, 공동주도권형 31.8%, 아내주도권형 2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관리유형에서는 남편주도권형이 38.6% 아내주도권형이 38.2%로 비슷한 정도로 많이 나타났고, 공동주도권형은 24.6%로 나타났다. 독립적 관리유형에서는 남편주도권형이 55.6%

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총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공동주도권형이 6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남편주도권형이 40%였으며 아내주도권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금전관리유형과 경제생활주도권유형간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V. 금전관리 유형과 경제생활주도권 유형의 측정방법 및 실태

1. 조사대상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맞벌이부부 중 아내인데 이들

은 전문직·사무직·관리직으로 취업하고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 세부직업의 선정은 국가차원의 통계자료에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직업분류(노동부, 1995)'에서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1996년 10월 5일에서 11월 10일까지 두 번의 면접조사와 한번의 질문지 조사를 하였다. 예비조사에 근거하여 질문지를 수정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기간은 1997년 1월 20일부터 2월 30일 사이였다.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조사요원에게 질문지를 전달하였고 조사요원이 자신의 사업장에 질문지를 배포한 후 10일 후에 회수하였다. 일부 직종의 대상자는 연구자가 직접 면접조사를 하였다. 총 421부를 배포하여 335부를 회수하였으며 31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3>과 같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수를 묻는 문항, 소득합산 유형을 묻는 문항, 가계지출책임을 묻는 문항, 경제생활주도권과 이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합산 유형, 가계지출책임, 경제생활주도권 문항은 명목척도로 되어 있고, 경제생활 주도권의 중요도는 3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다. 척도의 내용과 구성은 이어지는 측정방법에 포함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표 3> 조사대상자의 배경

N(%)*, N=311^b

소득관련사항		소득관련 이외의 사항			
가계총소득(만원)		아내관련사항		남편관련사항	
		나 이		나 이	
199이하	8 (2.7)	20대	114(36.8)	20대	35(11.3)
200-299	84(28.5)	30대	156(50.3)	30대	216(69.7)
300-399	106(35.9)	40대이상	40(12.9)	40대이상	59(19.0)
400-499	46(15.6)	평균(SD)	32.7(6.5)	평균(SD)	35.3(6.8)
500이상	60(17.3)	교육수준		교육수준	
평균(SD)	375.7(157.1)	고졸	56(18.0)	고졸	18(5.8)
아내소득(만원)		초대졸	39(12.5)	초대졸	21(6.8)
100 미만	41(13.8)	대졸	216(57.6)	대졸	187(60.3)
100-199	197(66.1)	대학원이상	37(11.9)	대학원이상	84(27.1)
200이상	60(20.1)	평균(SD)	15.3년(1.8)	평균(SD)	16.2(1.5)
평균(SD)	149.2(76.9)	근무형태		근무형태	
남편소득(만원)		전일제	285(91.6)	전일제	302(97.1)
100 미만	2(.7)	시간제	26(8.4)	시간제	9(2.9)
100-199	138(46.8)	직업지위		직업지위	
200-299	103(34.9)	전문·관리직	108(34.7)	전문·관리직	143(46.3)
300 이상	52(17.6)	사무직	203(65.3)	사무직	151(48.9)
평균(SD)	210.7(97.5)			기타	15(4.9)

a : %합이 100이 아닌 것은 반올림에 의한 것임.

b : 무응답을 missing 처리하여 빈도에서 차이가 남

3. 금전관리 유형의 측정방법 및 실태

1) 금전관리 유형의 측정방법

부부의 금전관리유형은 ① 부부의 소득합산방법 ② 가계지출책임의 두 가지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첫 번째 부부의 소득합산방법을 위한 조작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부 부 소 득 = 아내소득 + 남편소득
- 합하는정도 = 전부 또는 일부
- 관 리 자 = 아내, 남편, 공동, 분리

위의 3가지 기준에 따라 부부의 소득합산유형을 다음의 7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 ① 아내소득 전부와 남편소득 전부를 아내가 관리한다.
- ② 아내소득 전부와 남편소득 일부를 아내가 관리한다.
- ③ 남편소득 전부와 아내소득 전부를 남편이 관리한다.
- ④ 남편소득 전부와 아내소득 일부를 남편이 관리한다.
- ⑤ 남편소득 전부와 아내소득 전부를 공동으로 관리한다.
- ⑥ 남편소득 일부와 아내소득 일부를 공동관리하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 한다.
- ⑦ 남편소득 전부와 아내소득 전부를 각자 관리한다.

다음으로 가계지출책임의 조작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계지출 책임 = 자신이 관리하는 돈을 가계지출에 사용하는 것
- 가계지출 정도 = 주로 또는 소수
- 지 출 자 = 아내, 남편, 공동, 분리

위의 3가지 기준에 따라 가계지출책임유형을 다음의 7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 ① 전적으로 아내가 관리하는 돈으로 지출한다.
- ② 주로 아내가 관리하는 돈으로 지출하고, 소수는 남편이 관리하는 돈으로 지출한다.

- ③ 전적으로 남편이 관리하는 돈으로 지출한다.
- ④ 주로 남편이 관리하는 돈으로 지출하고, 소수는 아내가 관리하는 돈으로 지출한다.
- ⑤ 모두 공동으로 관리하는 돈으로 지출한다.
- ⑥ 일부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돈으로 지출하고 일부는 분리하여 지출한다.
- ⑦ 모두 분리하여 자기가 맡은 부분에 각자 관리하는 돈으로 지출한다.

2) 금전관리 유형의 실태

먼저 소득합산 유형과 지출책임 유형을 결합하여 금전관리 유형으로 분류해보면 <표 4>와 같이 나타난다. 이중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부부의 소득 모두를 아내가 맡고 있으면서 가계지출도 전적으로 아내가 책임지는 유형으로 전체의 34.4%가 이에 해당되었다. 두 번째는 부부소득을 모두 아내가 맡고 있으면서 가계지출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남편이 가계지출의 일부를 책임지는 유형으로 전체의 17.4%가 이에 해당되었다. 세 번째는 아내소득전부와 남편소득일부를 아내가 맡은 후 가계지출 대부분을 책임지고, 남편은 가계지출의 일부를 책임지는 유형으로 전체의 10.6%가 이에 해당되었다. 네 번째는 부부소득을 공동으로 맡은 후 가계지출도 공동으로 책임지는 유형으로 전체의 12.9%가 이에 해당되었다. 다섯 번째는 부부가 각자의 소득 중 일부는 공동으로 맡고 일부는 분리하여 맡으면서, 가계지출도 일부는 공동으로 책임지고 나머지는 분리하여 책임지는 유형으로 전체의 3.2%가 이에 해당되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각자의 소득 중 일부는 공동으로 맡고 나머지는 분리하여 맡고 있으면서도 아내가 대부분의 가계지출을 책임지고 남편은 일부만을 책임지는 유형으로 전체의 3.2%가 이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6가지 유형은 그 빈도가 10을 넘는 유형이다(검계 음영이 들어간 칸).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칸의 빈도가 10 미만인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판단하여 제외하고 10이상인 것만 택하여 <표 5>와 같이 금전관리유형을 분류하고 명명하였다.

〈표 4〉 금전관리 유형

지출책임 \ 소득합산	N(%) ^a							
	전적으로 아내	주로 아내	전적으로 남편	주로 남편	완전공동	일부공동 일부분리	완전 분리	계
전적으로 아내	107(34.4)	3(1.0)				3(1.0)	1(1.3)	114
주로 아내	54(17.4)	33(10.6)				10(3.2)	4(1.3)	101
전적으로 남편		1(3)	3(1.0)	1(3)		1(3)		6
주로 남편		8(2.6)	1(3)	1(3)		4(1.3)		14
완전공동					40(12.9)	2(6)		42
일부공동 일부분리					7(3.0)	10(3.2)		17
완전분리		4(1.3)		1(3)		5(1.6)	7(3.0)	17
계	161	49	4	3	47	35	12	311

a : %합이 100이 아닌 것은 반올림에 의한 것임

〈표 5〉 금전관리 유형의 명칭과 분포

금 전 관 리 유 형	N=254	
	N	% ^a 순위
아내완전관리형 : 부부의 소득을 모두 아내가 맡아관리하고 가계지출도 전적으로 아내가 책임지는 유형	107	42.1 ①
아내위주·남편만주머니형 : 부부의 공식적 모두 아내가 맡아관리하고 가계지출은 주로 아내가 소수는 남편이 책임지는 유형	54	21.3 ②
완전공동형 : 부부소득을 모두 공동으로 맡아관리하고 가계지출도 공동으로 책임지는 유형	40	15.7 ③
아내위주·남편일부참여형 : 아내소득과 남편소득 일부를 아내가 맡아관리하고 가계지출은 주로 아내가 소수는 남편이 책임지는 유형	33	13.0 ④
일부공동·일부분리형 : 소득 중 일부는 공동으로 일부는 분리하여 맡아관리하고, 가계지출도 일부는 공동으로 나머지는 공평하게 나누어 자신이 담당하는 영역만 책임지는 유형	10	3.9 ⑤
다중형 : 소득 중 일부는 공동으로 나머지는 분리하여 맡아관리 하고, 가계지출은 주로 아내가 소수만 남편이 책임지는 유형	10	3.9 ⑤

a : %합이 100이 아닌 것은 반올림에 의한 것임.

4. 경제생활주도권 유형의 측정방법 및 실태

1) 경제생활주도권 측정방법

경제생활주도권을 유형화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생활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사항에 대하여 누구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아내'라고 응답한 것에는 1점, '남편'은 -1점, '부부공동'은 1점, '부부가 따로따로'는 -1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우선 '아내'가 결정하거나 '남편'이 결정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하고,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각각' 결정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하여 이 두 묶음이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념이 나누어진다고 판단하여 같은 양의 점수(절대값이 1점)를 부여한 것이다(between gorup). 그 다음 각각의 묶음안에 있는 두 개념(within group)을 서로 반대개념으로 보아 첫 번째 묶음에서 '아내'가 결정하거나 '남편'이 결정하는 것에 각각 부호만 다른 동일한 점수를 주었고(1, -1), 두 번째 묶음에서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각각' 결정하는 것에 마찬가지로 부호만 다른 동일한 점수를 준 것이다(1, -1).

(2) 위에서와 같은 항목에 대해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을 얼마나 비중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비중있는 일이다'는 3점, '보통이다'는 2점, '비중있는 일이 아니다'는 1점을 부여하였다.

(3) 한 개인에 대하여 하위 주도권점수인 아내주도권점수, 남편주도권점수, 공동주도권점수, 각각주도권점수를 계산하였다.

여기에서 절대값을 취하여 총합을 계산하였는데 그 이유는, (-)부호는 단지 상대적 개념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으므로 점수를 그냥 합산하면, (-)부호인 하위주도권의 영향력이 없어지면서 다른 하위주도권에 도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다.

(4) ① 공동주도권점수가 하위주도권점수 절대값 합 50%이상이면 공동 주도권형으로 정하였다.

$$\bullet (\text{공동주도권점수} \div \text{하위주도권점수 절대값의 합}) \times 100 < 50$$

② 마찬가지로 각각주도권의 점수가 하위주도권점수 절대값 합 50%이상이면 독립적 주도권형으로 정하였다.

$$\bullet (\text{각각주도권점수} \div \text{하위주도권점수 절대값의 합}) \times 100 < 50$$

(5) 공동주도권형과 독립적 주도권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례 중에서

· 묶음끼리의 영향력비교(between group):

$$|\text{아내주도권점수} + \text{남편주도권점수}| \leq |\text{공동주도권}$$

점수 + 각각주도권점수

· 묶음내부에서의 영향력비교(within group):

$$(\text{아내주도권점수} + \text{남편주도권점수}) \leq 0$$
 를 계산하여

① 아내주도권점수와 남편주도권점수를 합한 것의 절대값이 공동주도권점수와 각각주도권점수를 합한 것의 절대값보다 크면서 아내주도권점수와 남편주도권점수의 합이 0보다 크면 아내주도권 형으로 하였다.

$$\bullet (\text{공동주도권점수} \div \text{하위주도권점수 절대값의 합}) \times 100 < 50 \text{ and}$$

$$(\text{각각주도권점수} \div \text{하위주도권점수 절대값의 합}) \times 100 < 50 \text{ and}$$

$$|\text{아내주도권점수} + \text{남편주도권점수}| > |\text{공동주도권점수} + \text{각각주도권점수}| \text{ and}$$

$$(\text{아내주도권점수} + \text{남편주도권점수}) > 0 \text{을 만족해야 한다.}$$

② 아내주도권점수와 남편주도권점수를 합한 것의 절대값이 공동 주도권점수와 각각주도권점수를 합한 것의 절대값보다 크면서 아내주도권점수와 남편주도권점수의 합이 0보다 작으면 남편주도권형으로 하였다.

$$\bullet (\text{공동주도권점수} \div \text{하위주도권점수 절대값의 합}) \times 100 < 50 \text{ and}$$

$$(\text{각각주도권점수} \div \text{하위주도권점수 절대값의 합}) \times 100 < 50 \text{ and}$$

$$|\text{아내주도권점수} + \text{남편주도권점수}| > |\text{공동주도권점수} + \text{각각주도권점수}| \text{ and}$$

$$(\text{아내주도권점수} + \text{남편주도권점수}) < 0$$

③ ①도 ②도 아닌 경우는 자율형으로 하였다.

자율형에 속하는 사례는 공동주도권점수와 각각주도권점수가 하위주도권점수 절대값 합 50%를 넘지 않으면서, 아내주도권점수와 남편주도권점수를 합한 것이 공동주도권점수와 각각주도권점수를 합한 것보다 작을 때와 두 점수가 같을 때이다.

<p>· (공동주도권점수 ÷ 하위주도권점수 절대값의 합) × 100 < 50 and (각각주도권점수 ÷ 하위주도권점수 절대값의 합) × 100 < 50 and 아내주도권점수 + 남편주도권점수 < 공동주도권점수 + 각각주도권점수 </p>
<p>· (공동주도권점수 ÷ 하위주도권점수 절대값의 합) × 100 < 50 and (각각주도권점수 ÷ 하위주도권점수 절대값의 합) × 100 < 50 and 아내주도권점수 + 남편주도권점수 = 공동주도권점수 + 각각주도권점수 </p>

2) 경제생활주도권 유형의 실태

중요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와 중요도를 반영한 경우로 나누어 경제생활주도권유형을 분류한 결과가 <표 6>에 나타나 있다. 중요도를 반영하지 않고 분류한 결과 공동주도권형이 77.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아내주도권형이 10.1%, 자율형이 8.1%, 남편주도권형이 3.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독립적 주도권형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중요도를 반영하여 재분류한 결과 아내주도권형이 5.3%로 크게 낮아졌으며 자율형도 약간 낮아진 반면 공동주도권형은 83.1%로 높아졌고 남편주도권형도 약간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 공동주도권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Wilson(1987)이 고소득가계 중 소득이 있는 아내는 재정의사결정과 재정책임을 남편과 공유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정경제생활에서 공동의사결정이 가장 많이 나타난 Edwards(1981), Ferbe와 Lee(1974), McConocha 외 2인(1993), 임정빈 외 7인(1986), 최규련외 4인(1994)의 결과와 비슷하며, 아내주도권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 Pahl(1989)의 연구, 남편주도권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 황덕순(1981)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5. 금전관리 유형에 따른 경제생활주도권

금전관리 유형과 경제생활주도권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부부가 금전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와 경제생활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아내완전관리형의 경우 기대빈도에 비하여 공동주도권형이 많이 나타났고, 남편주도권형과 자율형은 적게 나타났다. 아내위주-남편만주머니형에서는 공동주도권형은 적게 나타나고 자율형이 많이 나타났다. 아내위주-남편일부참여형의 경우 공동주도권형은 적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자율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완전공동형에서는 공동주도권형이 높게 나타나고 자율형이 낮게 나타났다. 일부 공동-일부분리형과 다중형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아내완전관리형과 완전공동형에서는 공동주도권형이 많이 나타나고 자율형이 높게 나타나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아내위주-남편만주머니형과 아내위주-남편일부참여형에서는 공동주도권형이 낮게 나타나고 자율형이 높게 나타나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황덕순(1981)의 연구에서 아내가 총수입관리자일 경우 남편주도권형이 많이 나타난 결과와는 다르며, 남편이 총수입관리자일 경우 남편주도권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과는 부분적으로 비슷하였다. Pahl(1989)의 결과와는 대체로 다르게 나타났다.

<표 6> 중요도 유무에 따른 경제생활주도권 유형

중요도 유무 주도권 유형	중요도 반영하지 않음 N=307(%) 순위	중요도 반영함 N=301(%) 순위
· 아내주도권형	31(10.1) ②	16(5.3) ③
· 공동주도권형	239(77.9) ①	250(83.1) ①
· 독립적주도권형	2(7) ⑤	2(7) ⑤
· 남편주도권형	10(3.3) ④	11(3.7) ④
· 자율형	25(8.1) ③	22(7.2) ②

a : %합이 100이 아닌 것은 반올림에 의한 것임

〈표 7〉 금전관리유형과 경제생활주도권유형과의 관계

관리유형		N=245						χ^2
		아내완전 N=102	아내위주- 남편 만주머니 N=53	아내위주- 남편 일부참여 N=32	완전공동 N=38	일부공동- 일부분리 N=10	다중 N=10	
· 아내주도권 N=14	N(e.f. ^a)	6(5.8)	4(3.0)	2(1.8)	2(2.2)	0(0.6)	0(0.6)	χ^2 25.40 *
· 공동주도권 N=209	N(e.f.)	93(87.0)	41(45.2)	22(27.3)	35(32.4)	9(8.5)	9(8.5)	
· 남편주도권 N=5	N(e.f.)	0(2.1)	2(1.1)	2(7)	0(8)	1(2)	0(2)	
· 자율 N=17	N(e.f.)	3(7.1)	6(3.7)	6(2.2)	1(2.6)	0(7)	1(7)	

a : expected frequency(기대빈도)

* $p < .05$

VI. 결론 및 제언

도시 맞벌이부부의 금전관리유형과 경제생활주도권유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도시 맞벌이부부의 금전관리를 부부의 소득 합산 방법과 가계지출책임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화한 결과 아내완전관리형, 아내위주-남편만주머니형, 아내위주-남편일부참여형, 완전공동형, 일부공동-일부분리형, 다중형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전관리 유형은 아내완전관리형이고 다음으로는 아내위주-남편만주머니형이었다. 일부공동-일부분리형이나 다중형을 사용하는 부부는 소수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경제생활에 대한 부부의 의사결정 유형을 기초로 하여 부부의 경제생활주도권 유형을 분류한 결과 아내주도권형, 남편주도권형, 공동주도권형, 자율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생활주도권 유형의 실태를 보면 중요도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는 공동주도권형, 아내주도권형, 자율형, 남편주도권형의 순으로, 중요도를 반영한 경우는 공동주도권형, 자율형, 아내주도권형, 남편주도권형의 순서로 주도권 유형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금전관리유형에 따라 경제생활주도권 유형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아내완전관리형과 완전공동형에서는 공동주도권형이 많이 나타나고 자율형이 적게 나타났지만, 아내위주-남편만주머니형과 아

내위주-남편일부참여형에서는 자율형이 많이 나타나고 공동주도권형이 적게 나타나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끝으로 후속연구와 맞벌이부부의 합리적인 가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경제생활주도권 측정방법에서 의사결정의 하위영역에 따라 '중요도'를 부여한 결과 주도권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된 방법은 가정경제생활의 주도권을 좀더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정방법의 타당성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재검증 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류하고 있는 금전관리유형과 경제생활주도권 유형이 맞벌이부부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이나 취업동기, 성역할태도와 같은 심리적 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도 의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금전관리유형에서 남편이 정규적 소득을 모두 아내에게 주면서도 가계지출의 일정부분을 담당할 정도의 액수를 보유하고 있는 아내위주-남편만주머니형이 많이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남편이 직장에서 월급(정규소득)이외에 부수입(비정규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체의 옳고 그름은 경제구조상의 문제라 할지라도, 가정차원에서는 이 액수를 아내들이 대체로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액수를 알기 위하여는 남편 스스로가 아내에게 밝히는 방법이 최우

선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부수입이 있는 남편에게 가계지출책임을 많이 담당하게 하거나 특히 남편과 관련된 일은 남편이 지출하게 하여 비정규소득을 가정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넷째, 경제생활주도권에서 중요도를 반영하여 유형을 살펴본 결과 아내주도권형이 감소하고 공동주도권형이나 남편주도권형이 증가한 것을 보면 내용상으로 가정의 경제생활에서 아내의 주도권이 적게 행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경제생활에서는 아내가 주도권을 남편에게 좀더 이양하고, 투자나 재무행동에서는 남편이 주도권을 좀더 아내에게 이양하여 전체 가정경제생활에서 부부가 평등하게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럼으로써 서로 모르거나 참여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나 불만족도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1) 강수경(1985). 취업주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국은경제연구소(1993). 한국인의 소비생활. 서울: 국은경제연구소.
- 3) 김문정(1987). 취업주부의 구매행동과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김미혜(1987). 취업주부가정의 가계구조 및 가계관리형태에 관한 연구. 부산산업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양희(1991).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31, 111-149.
- 6) 김성희와 문숙재(1989). 자아실현성과 공동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7(2), 163-178.
- 7) 김현정(1992). 30대주부의 취업유무와 가정특성이 가계재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참여도와 재정복지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김홍은(1986). 부부의 자원과 부부권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4(4), 179-188.
- 9) 노동부(1995). 한국직업사전.
- 10) 동아일보. 1995년 12월 27일자.
- 11) 문소정(1995). “가족과 경제생활”. 여성한국사회 연구회 편. 한국 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135-165.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12) 박명희(1977). 한국어촌의 가계관리연구. 관동대 논문집 5집, 327-340.
- 13) 박민자(1992). 부부관계의 평등성에 관한 연구. 덕성여대논문집 21, 3-31.
- 14) 여성신문. 1993년 10월 1일자.
- 15) 이기숙(1994). 맞벌이 가족의 여성, 부부 그리고 자녀. 부산여자대학교 여성연구 5, 61-91.
- 16) 이용학(1985). 우리나라 취업주부의 소비자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7) 이정우와 김규원(1986). 저소득층 취업주부 가정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성남시 취업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4(14), 164-177.
- 18) 임정빈(1986). “가정의 금전관리에 관한 실증적 조사연구”. 박금순 편. 가정의 금전관리, 9-78. 서울: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총본부.
- 19) 임정빈, 이기영, 이연숙, 김외숙, 조재순, 고성혜, 임혜경과 송혜림(1994). 중·고교생 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 연구회 제1회 심포지움.
- 20) 정부(제2)장관실(1994). 민주적 가족관계정립을 위한 ‘평등한 부부’에 대한 의견조사.
- 21) 제미경(1994). 취업주부의 시간절약재활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2) 조선일보. 1994년 2월 13일자.
- 23) 조은희(1993). 주부의 취업이 소비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시간자원제약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4) 최규련과 서동인(1995). “맞벌이가족 연구의 현황”.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맞벌이 가정의 가족문제, 47-98. 서울: 도서출판 하우.
- 25) 최규련, 서동인, 조병은, 신화용과 김양희(1995). “맞벌이가족의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맞벌이가정의 가족문제, 99-247. 서울: 도서출판 하우.
- 26) 황덕순(1981). 제주도의 가계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2), 39-56.

- 27) 황성심(1991). 취업주부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28) Blood & Wolfe(1960). *Husband & Wives: The Dynamics of Marital Living*. N.Y. : The Free Press.
- 29) Brannen, J. & Moss, P.(1987). "Dual Earner Households; Women's financial contributions after the birth of the first child". Brannen, J. & Wilson, G.(Ed.) *Give and Take in the Families*. London: Allen & Unwin.
- 30) Brannen, J. & Wilson, G.(1987). *Give and Take in the Families*. London: Allen & Unwin.
- 31) Cromwell, R.E. & Olson, D.H.(1975). *Power in Families*. N.Y. : Halsted Press.
- 32) Edwards, M.(1981). Financial arrangements within families. *Social Security Journal* (Dec.), 1-16.
- 33) Ferber, M.A.(1982).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Young Married Women : Causes and Effe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Aug.), 457-468.
- 34) Lee, G.R. & Petersen L.R.(1983). Conjugal power and spousal resources in patriarchal cultur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4, 23-38.
- 35) McConocha, D.M., Tully, S.A. & Walther, C.H. (1993). Household money management: recognizing nontraditional couple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7(2), 258-283.
- 36) Nickell, P. & Dorsey, J.M.(1969). *Management in Family Living*. N.Y.: Jhon Wiley & Sons, Inc.
- 37) Pahl, J.(1989). *Money and Marriage*. N.Y. : St. Martin's Press.
- 38) Sexton, C.S. Perlman, D.S.(1989). Couples' career orientation, gender role orientation, and perceived equity as determinants of marital pow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Nov.), 933-941.
- 39) Sharon-Bonham, P.(1976). A comparison of weighted and unweighted decision making scor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Aug.), 629-640.
- 40) Spitze, G.(1988). Women's employment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Aug.), 595-618.
- 41) Wilson, G.(1987). "Money: patterns of responsibility and irresponsibility in marriage". Brannen, J. & Wilson, G.(Ed.). *Give and Take in the Families*. London: Allen & Unwin.